EMERiCs
이슈분석

2016년 7월 29일
중남미 | [경제] 파라과이

# 2016년 상반기 파라과이 경제 동향과 전망

**구경모 HK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 주요 내용

□ 201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 특히 남미 공동시장의 회원국이며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중임.

□ 2016년 상반기는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음. 그러나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파라과이는 최근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악재가 산재해 있어 경제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님.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이슈 현황

## (경제 현황) 2016년의 경제 상황은 작년과 유사함.

- 2015년 파라과이는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파라과이는 2016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작년과 비슷한 2.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지난해와 유사한 상황을 보이고 있음.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2016년 상반기 동안에 각각 -3%대와 -1%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이에 비해 파라과이의 경제 성장률을 주목할 만함.
  - 특히 경제 대국인 브라질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대두 수출과 외국인투자의 증가로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 선방하고 있음.

- 파라과이 경제 성장률이 주변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지만, 2016년 상반기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서 향후 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음.

- 2016년 상반기는 작년의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수출액이 5.2% 감소하였음. 파라과이 제 1 수출품인 대두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소고기와 목재, 전력 수출이 줄어들었음.
  - 소고기의 경우는 제 2의 수출국인 러시아에서 34.3%나 줄어들었고, 제 3의 수출국인 브라질에서도 0.7%가 감소하였음. 이는 두 국가의 경제 침체에 따른 소비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전력수출은 전체적으로 8.9% 감소하였는데, 주요 전력 수출 대상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침체가 영향을 미침.

- 2016년 상반기는 작년의 같은 시기와 비교하여 수입액이 17.6%나 감소함.
  - 2013년부터 수입액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 소비재는 12.7%, 중간재는 28%, 자본재는 13.2% 등 수입 전 부문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석유 및 윤활유와 같은 중간재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1%가 줄어듦. 이는 파라과이의 주력 수출 업종인 농축산분야의 생산에서 소비되는 원료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파라과이의 수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자본재에서도 트랙터와 시추기 등 농업과 관련된 기계류의 수입도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0.7%나 줄어들어 향후 농축산분야의 생산 감소가 예상 됨.

- 2016년 상반기 무역 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1%로 큰 폭으로 늘어남.
  - 그러나 파라과이의 흑자 폭 증가가 수출액과 수입액의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로 발생한 것이 아님.
  -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줄면서, 수출에 대비한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모습을 띄고 있음.

## 2 원인과 분석

**(대내 상황) 파라과이의 1차 산업 중심과 수출주도형 농업 육성 정책, 특히 대두와 목축과 관련된 대기업농에 대한 지원 및 세제 혜택에 치중은 파라과이의 경제 구조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 파라과이의 경제 성장률은 1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농축산물의 가격과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2012년에는 -1%를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그 이듬해인 201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함. 이러한 상황이 언제든지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대기업농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어 있고 수출에 따른 소득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실업 및 비공식 노동인력이 증가하고 있음.
  - 파라과이의 빈곤율은 22.24%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매우 높은 편이며, 이 중 농촌지역의 극빈층은 18%에 달함.
  - 농촌의 빈농들이 도시로 지속으로 이주하여 비공식 노동에 종사함으로서 경제적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음.
  - 빈곤층에 대한 교육과 건강 부분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미흡함.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됨에 따라 사회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국가 제도와 공공 부문의 거버넌스의 취약
  - 공공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와 공공 부문의 수행 능력 부족은 큰 위험 요소임.

**(대외 상황) 석유등 원자재가격의 하락 여파로 인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파라과이에 대한 투자와 수입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 브라질의 경제 침체로 인한 국경지역 도시 상업 및 마낄라도라의 위축에 따라 노동자들의 실직이 예상됨.
  - 국경도시의 상업과 마낄라도라가 침체로 인해 실직 노동자들을 흡수할 산업 및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정부에서 중소기업으로 실직자들을 흡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거대 기업인 마낄라도라의 실직 인력을 모두 구제하기에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함.
  - 실직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예상됨.

## 3 전망과 시사점

**(전망) 파라과이는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비해 안정적인 경제성장률을 구가함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어 전망이 밝지 않음.**

-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에 비해 3.5%로 상향조정 했으나, 수출과 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듯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2016년 상반기처럼 3%의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선방하는 것임.

- 재정수지 균형 달성이 힘들 것으로 보임.
  - 2016년 예산에 대비하여 재정수지균형이 GDP대비 -1.5%에 이를 전망임. 작년에는 -1.8%를 기록하였음.
  - 공공부문의 인프라 투자와 해외자본 유치에 따른 채무로 인해 재정수지균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2년간의 재정수지적자 폭이 큰 만큼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가재정 건전성이 우려됨.

- 파라과이 중앙은행은 2016년과 2017년 인플레이션을 4.5%에 맞추고 있음. 또한 금리는 5.75%로 유지할 예정임.

- 달러화 대비 과라니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16년에는 1달러 당 5,900과라니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17년에는 1달러 당 6,000과라니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약 10년 만에 달러화 대비 과라니화가 가장 약세로 돌아설 예정임. 달러화의 강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됨.
  - 과라니화의 약세로 인해 외국인 투자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음.

- 국가 신용등급은 점차 올라가고 있으나 세계적인 경제 위기 여파로 그 상승폭이 꺾이거나 하락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음.

- 전반적으로 파라과이 2016년 경제는 2015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균형의 악화와 달러화의 강세, 불황형 흑자 기록, 높은 빈곤율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요인들이 산재해 있음.
  -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높은 편이지만, 여러 위험 요인으로 인해 경제적 전망이 밝은 편은 아님.

## 시사점

- 비산유국이며 광물자원 수출 비중이 낮은 파라과이는 이웃 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비해 석유 등 원자재 가격의 하락 여파를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지난해와 같은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파라과이의 주요 무역 거래국가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는 장기적으로 파라과이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파라과이와 경제협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 기업들은 파라과이의 재정수지 악화와 과라니화 약세 등 경제적 위험과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또한 파라과이는 한국의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에서 4대 중점지원국가에 속하는 만큼 그와 관련한 공공부문의 인프라 사업을 검토 혹은 추진 중에 있음. 파라과이 철도 건설과 공항 확장, 국도 건설 등이 대표적인 사업임. 파라과이의 거버넌스가 취약한 만큼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추진 후 사후 관리가 필요함. EMERiCs

**출처**
Banco Central del Paraguay 및 보도자료